

임동혁 27점 원맨쇼 “해피 버스데이”

대한항공 47개 범실 불구 한국전력에 3-2...4연승 선두 질주



대한항공 임동혁(오른쪽)이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홈경기 도중 3인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23번째 생일을 맞은 임동혁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27득점을 올리며 팀의 세트스코어 3-2 승리에 앞장섰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규민 5세트에만 속공·블로킹으로 5득점
대한항공, 2위 KB손보에 승점 5점차 앞서



대한항공이 무려 47개의 V리그 한 경기 최다범실을 범하고도 시즌 19승째(11패)를 따냈다.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한국전력과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6-28 25-20 23-25 25-22 15-13)로 이겼다. 쉽지 않은 범실에 고전했지만, 23번째 생일을 맞은 임동혁이 27득점(공격성공률 61%)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선두 대한항공은 승점 58로 2위 KB손해보험(16승 14패)에 승점 5점차로 달아났다. 5위 한국전력은 15승 14패(15승)를 안았지만, 승점 41로 '봄배구' 경쟁자인 4위 OK금융그룹(16승 14패)과 승점차를 없앴다.

한국전력은 현대캐피탈전 이후 3일, 대한항공은 삼성화재전 이후 4일만의 경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과 서재덕의 부상으로 가용인원이 많지 않아 한국전력으로서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경기 전 장병철 감독은 “경기 일정이 불어

서 체력안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시즌 중단 때 링컨, 한선수, 궤승석의 체력을 비축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토미 킬리카이넨 감독은 “2주간 체력보강을 하고 선수들과 대화로 합의점에 다다른 부분이 있다. 플레이의 스피드뿐 아니라 팀플레이, 개인의 기술 등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경기를 할 것인지 얘기를 했다. 나는 계속 꾸꾸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세트 한국전력이 계속 앞서나갔지만, 대한항공 정지석이 서브로 흐름을 바꿨다. 14-14에서 궤승석의 다 이젝트 공격 성공과 서브에이스가 잇달아 나오면서 2점차로 역전했다. 한국전력은 좀처럼 지지 않던 2점을 따라붙은 것도 서브였다. 한국전력은 21-23에서 신영석의 2연속 서브에이스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듀스 혈투에서 한국전력이 웃었다. 26-26에서 링컨의 서브와 백어택이 연달아 아웃되면서 세트가 끝났다. 팀 공격성공률에선 대한항공이 10% 앞섰지만, 범실 13-4가 승패를 갈랐다.

2세트를 시작하자마자 정지석이 앞장섰다. 3개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다우디를 블로킹하며 4-0 리드를 안겼다. 한국전력은 끈질긴 수비로 따라붙었지만, 다우디의 공격효율이 -9%에 그치면서 뒤집지는 못했다.

대한항공은 18-18에서 정지석과 임동혁의 오픈공격 성공과 다우디의 공격범실, 정지석의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세트를 만회했다.

3세트 다우디와 링컨을 대신해 각각 박철우와 임동혁이 출전했다. 한국전력은 경기 처음으로 블로킹이 3개나 터지면서 범실이 잦은 대한항공을 압박했다. 22-22에서 다우디의 연속 오픈공격 성공으로 세트포인트에 먼저 도달했다. 마무리는 24-23에서 박철우의 백어택이었다.

대한항공은 4세트 19-14에서 정지석의 서브범실로 종전 한 경기 최다범실 기록(42개)과 나란히 했다. 이후에도 범실은 멈추지 않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22-23으로 추격하던 차에 나온 한국전력 조근호의 서브범실이었다. 결국 대한항공이 25-22로 4세트를 따냈다.

5세트 대한항공 김규민이 한국전력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전력이 10-13에서 김동영의 서브에이스 등으로 13-14까지 따라붙었지만, 김규민이 속공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13득점의 김규민은 5세트에만 속공과 블로킹으로 5득점했다.

▶ 프로배구 관련기사 6면
인천 |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전지현 505억 상가 매입 부동산 재벌로 떠올랐다

등촌동 소재 지상 3층 규모...서울에만 부동산 4채 소유
상업용 부동산 3채 가치만 매입가 기준 888억 원 수준

배우 전지현이 서울 강서구의 상가 건물을 505억 원에 사들이며 '1000억대 부동산 부호'로 떠올랐다. 전지현이 2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스포츠동아가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내용을 보면, 전지현은 2월 4일 자신 명의(왕지현)로 면적 5098㎡(1542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주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전지현

부동산업계는 전지현이 “현금 약 200억 원에 305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신한은행이 채권 최고액 33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돼 있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대출금의 120%이라는 점에서 전지현은 약 305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건물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의 합작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2019년 2월 완공해 2021년 3월 국민은행에 350억 원에 매각했다. LG전자의 가전유통 전문 자회사로 LG베스트샵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가 2019년 3월 10년간 건물 전체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설정 전세금 6억 원으로, 월 임차료는 1억6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지현은 기존에 보유해온 자택과 두 채의 건물 등에도 하나의 상가 건물을 더하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전지현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삼성동의 상가 건물을 보유해왔다. 이번에 사들인 등촌동 상가를 포함한 세 채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만 매입가 기준 88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7년 325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삼성동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에 앞서 2013년 4월 용산구 이촌동의 지상 2층 규모 상가 건물을 58억 원에 샀다.

전지현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연 면적 1806㎡(546평)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를 235억 원에 팔기도 했다. 2007년 약 86억 원에 매입, 149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부동산업계는 이 이익금을 이번 등촌동 상가 매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GOLF CLUB FULL SET



가지고 싶었던 풀세트

기간 한정 특가세일 ☎ 상담전화 1855-1879, 1666-1879



• 케디백 무료증정 • 1년간 무료피팅 서비스 • 프로 골프 무료 레슨 5회가능 • 무료시타가능